

협회, '벤처윤리위원회' 출범

- 벤처기업의 기업윤리경영시스템 도입 및 인식 확산사업 추진 -

협회는 지난 8월 6일, 벤처기업의 자율적 노력으로 기업윤리경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이화여대 김일섭 경영부총장을 위촉하였다. 벤처윤리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에서 연세대 박헌준 교수, 한양대 한정화 교수가 참여하고, 시민단체에서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법조계에서 법무법인 광장 이상기 변호사, 벤처기업계에서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협회 오형근 전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회 장흥순회장은 "투명한 기업경영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들이 기업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우리 벤처기업들이 좀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벤처기업 스스로 기업윤리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형을 개발하고 ▲진단모형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결과를 '벤처기업대상' 선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업공개(IPO) 때 윤리경영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8월 31일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창구도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하였다. 협회는 현재 홈페이지(<http://www.kova.or.kr>)에 '신고센터'를 마



▲ 위원회 출범 후 기념촬영

련하고 벤처기업의 비윤리 경영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산하기구로 기업의 윤리문제를 다룰 '기업윤리분과위원회'와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벤처기업의 사후관리문제를 다룰 '사후관리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5인 이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Pool제로 운영된다.

초대위원장을 맡은 김일섭 부총장은 "벤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10월부터는 기업의 윤리경영 모델의 적용과 확산을 통해 벤처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의 : 홍보팀 오완진 팀장(02-562-5914)

